

하고 또 二首가 左右隅角에서 外向하였으며 後面에는 雲文새로 頭身이 隱見하는데 其 一首가 中間에서 上으로 머리를 두고 기어오르고 其二首가 左右隅角에서 外向하고 있으며 頂上에는 또 二首가 相對하고 있다. 螭首 下面에는 蓮瓣文이 彫刻되고 그 안으로 三段의 받침이 造出되었고 長方形의 碑孔에 碑身 上部를 드러 맞추었다. 螭首正面에 正方形 碑額이 雲文에 싸이어 있으나 篆額 字銘은 없다.

碑身에도 碑文이 없고 篆額에도 字銘이 보이지 않으니 그 碑名도 모를 뿐만 아니라 建立由來도 알 수 없음은 遺憾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碑文이 없는 碑를 세운 理由가 궁극하다. 或 往時 塔碑 또는 事蹟碑로 龜趺·碑身·螭首 등을 마련하였다가 어떠한 事情으로 刻字를 하지 못하고 碑材를 그대로 세워 놓았는지 모르겠다. 碑文이 없어 碑로서의 眞價가 없을뿐 아니라 年代 또한 未詳이나 이 碑의 彫刻은 精巧을 다한 것으로 往時의 代表가 될만한 優作이라 하겠다. 彫刻手法으로 보아 前記 三層石塔과 같이 麗代의 所作으로 推定되는 바이다.

實測值 總高(地上高)三八〇cm 龜趺高七〇cm 幅一四五cm、碑身高二二〇cm 幅一一〇cm 厚二二cm、螭首高一一〇〇cm 長一六〇cm 幅六〇cm

(註) 寺址巨岩上에 放置된 坐像으로 頭部가 破損(後補)되었고 結跏趺座에 智學印을 하였는바 彫刻이 疎忽하다.

### 南原 禪院寺의 鐵佛坐像

鄭 永 鎬

禪院寺는 全北南原邑에서 咸陽行街道로 約 一km地點 左側沿道에 자리 잡고 있는데 境內에 鐵佛坐像을 비롯 石燈·礎石 등의 石材가 遺存하여 注目되었다. 이 寺刹에 對하여는 東國輿地勝覽에 所在만이 簡單히 보일뿐

이고 其他遺物에 關하여는 아무런 記錄이 없다. 筆者는 一九五九年三月에 同人 金光珠氏와 함께 이 곳을 調査했으며 今年三月에 再調査한 바 있다.

#### 一、鐵佛坐像

藥師殿內에 主尊으로 奉安한 藥師如來像으로서 鐵製이나 金漆이 燦爛하다. 兩手는 缺하여 現在는 木造로 後補한 것이며 白毫와 耳朶의 傷痕을 補修한 外에는 比較的 完形이라 하겠다. 螺髮의 頭頂에는 肉髻가 있으며 兩眉、眼과 口唇 三道 등이 整齊되고 相好는 圓滿하다. 通肩한 法衣는 兩腕에 걸쳐 무릎을 덮었고 兩膝로 부터 앞자락이 내려졌으며 背面에서 衣紋이 보이는데 全體的으로 流麗한 衣紋에 注目되었다. 實測值(cm)는 坐高二二〇 頭高四一 肩幅五〇 胸幅三四 膝幅九〇 高二二이다.

相好가 豊美하며 兩肩으로부터 胸前、膝部로 내려오면서 各部가 均整하고 端雅한 手法으로 보아 年代는 麗初로 推定되는 優作으로 貴重한 鐵佛의 一例라 할 것이다. 現在 保存은 良好하다.

坐像下部의 佛壇속에는 蓮華臺石(註)이 있어 위를 받치고 있는데 이 佛像의 臺座는 아니나 그 手法으로 보아 麗代의 遺品으로 推定된다. (註) 長方形의 竿石위에 蓮華石을 놓았는데 竿柱의 側面에는 兩隅柱와 윗쪽의 陰刻一線이 보인다. 그 위 臺石도 長方形으로 側面

四方面에 仰蓮을 둘 리고 上面에는 다시 一段(高三cm)이 마련되어 四方面에 蓮瓣이 彫刻되었으며 (五二cm x 四四cm) 上面의 長方形龕 中央部에는 徑二〇cm의 圓形으로 凹部가 있어 注目되었다. 現在 이 위에 木造架構



가 있고 그위에 坐像을 奉安하고 있다. 實測值(cm)는 竿石 高約 三〇 平面 四〇×三六 上臺石 高約 三〇 平面 七〇×六二이다.  
二、其他 遺物

藥師殿前庭에는 石燈의 八角下臺石과 竿柱만이 있는데 磨損이 甚 하나 下臺에는 伏蓮이 完全하며 竿柱上部에는 上臺石에 崙는 突起가 보인다. 蓮瓣이나 竿柱의 手法으로 보아 麗代로 推定된다. 實測值(cm)는 下臺石 高四〇 徑八八 竿柱 現高八〇 邊長一三이다. 한편 建物の 礎石으로 쓰여진 礎石도 中央에 重圈圓座가 完全한 麗代의 遺品으로 보였다.

現住持僧 吳一鐸氏말에 依하면 最近에 「明月堂」建物を 繕고 그 木材로 現「冥府殿」과 僧房三間을 세웠다는데 그 當時 다음과 같은 墨書銘이 發見되었다고 한다.

「萬行山禪院寺重葺上梁文 崇禎紀元後再乙酉即 乾隆參拾年二月初陸日 開起十四日亥時立柱三月三日戊寅戌時上樑」

### 蠟石製十二支像의 新例

張 南 植

慶州博物館에 慶州 忠孝里出土의 蠟石製十二支子像과 午像이 陳列되어 있는 바 이밖에도 頭部를 缺한 이와 비슷한 蠟石像 二點이 收藏品中에서 調査된 바 있어 紹介한다.

(1) 一九五四、三、二七 慶州 北面에서 出土된 것이다.

높이 三五cm 幅 二四cm 두께 一〇cm의 軟質灰白色蠟石에 神像을 浮刻하였으며 胸部 以下만 남고 上部가 斜線으로 切斷되었다. 彫刻線은 거의 上半身을 缺하여 全貌를 알 수 없으나 左手를 허리에 잡고 右手에 長矛를 잡았으며 刀痕이 刻明한 手法으로 全身에 甲冑武裝을 表

現하고 있다. 이 彫像이 左脚에 힘을 주고 右脚은 休息姿勢를 보이는 點은 흔히 있는 十二支像과 特異한 形態라 하겠다.



塔身의 神像에 是비슷한 例가 있으나 墓石十二支에 긴 장대(矛)를 든 例는 憲德王陵의 卯像 掛陵의 酉像 已像 辰像 寅像 丑像 景德王陵의 辰像 金庚信墓의 丑像 午像 皇福寺址의 丑像 亥像 등이 모두 긴 장대(矛) 끝에 戈, 斧 등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右手의 火陷처럼 나부끼는 옷소매와 兩쪽 옷머의 꿈틀거리는 衣紋이 忠孝里出土의 神像과 거의 酷似함이 注目된다.

(2) 出土地 및 出土日(1)과 같음

前記의 神像과 同一한 石材로서 頸部가 直線으로 切斷되었으며 高三三cm 幅 二四cm 두께 一〇cm이다. 胸部 及 下半部의 傷痕이 甚하여 輪廓을 알아 보기 어려우나 胸部에 兩손을 모아 쥐고 있는 것으로 보아 寶珠를 갖인 像으로 認定된다.

특히 頸部에 같은 구슬이 歷歷하고 兩쪽 옷소매의 衣紋亦是 前記의 像과 거의 一致된 手法이라 하겠다.

손에 寶珠를 갖인 例는 掛陵의 辰像 左手에, 興德王陵 已像 左手와 辰像 兩手, 金庚信墓 子像 右手에서 各各 볼 수 있다.

以上 二例를 綜合한다면 忠孝里出土의 子像과 午像은 正面이고 川北面出土의 (1)은 左向인듯하니 丑、辰、未、戌、中의 어느 것일 것이고 (2)는 右向인듯하니 寅、巳、申、亥、中의 어느 것에 該當될 것으로 보겠다. 甲冑로 束身한 躍動的威風이 八世紀末新羅彫刻美術에서 볼 수 있는 바와 恰似하고 忠孝里出土의 神像과 同一한 手法으로 生覺된다.